

해삼종묘배양장 본격가동

군산시, 고부가가치 수산물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군산시는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친환경·첨단 양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시설은 순환여과식 해삼종묘배양장 시설로, 총사업비 12.6억원(국비 3.8, 시비 3.8, 자담 5.0)을 투입해 육도면 비안도 246-2, 3번지(부지면적 926㎡)에 관리동(18.36㎡), 종묘양식장(580㎡), 기계실(20.25㎡)을 구축했다.

현재 군산 섬지역 많은 어가에서 해삼 자연양식을 하고 있다. 지역대표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해삼으로 선정해 육도면 비안도 연도, 여청도에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삼종묘 배양장이 없어 타지역

에서 수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완공된 해삼종묘배양장 시설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키워진 종묘로 관내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으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삼은 중국 진통 보양식품, 건해삼 가공시 kg 당 가격이 수백만원까지 상승하는 부가가치 품종으로, 코로나19 이후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시장확대 전망이 예상된다.

또 시는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 방축도에 이어 연도 해역에 해삼 서식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물 조성 및 우량 종자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비응향 일원에 총사업비 80억원 규모로 준비중인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조성사업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센터가 완공되면 군산에서 생산되는 약700~900톤 해삼 위판 활성화를 통한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 군산 산지에서 생산되는 해삼의 상품성 제고 및 선진화를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김 양식의 작황부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의 증가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가 바이오커튼(냄새여과장치)을 활용해 양돈농가 축사 악취 저감에 힘쓴다.

“축사주변 악취문제 개선될 것”

익산시, 바이오커튼 활용 축사 악취 저감 ‘탁월’

익산시가 바이오커튼(냄새여과장치)을 활용해 양돈농가 축사 악취 저감에 힘쓴다.

시는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 선정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마을과 인접하고 악취 민원이 많은 오산면·망성면의 돈사 2개소에 바이오커튼과 오존수 분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커튼은 축사 환기구를 통한 냄새와 먼지의 배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커튼 내부에 오존수를 분무해 냄새물질을 분해시켜 정화된 공기를 커튼 밖으로 내보내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황화합물 분자를 오존수가 결합해 파괴시킴으로써 암모니아가 90%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분진은 바이오커튼을 통해 92%가 감소돼 냄새 물질의 매개체가 사라져 악취의 확산을 줄이게 된다.

망성면 서용석 농가는 “지난 4월 시설이 완공된 이후 돈사 내외부의 악취를 측정 한 결과 악취물질인 암모니아가 90% 감소됐고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했다”며 “유용미생물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거뒀고 앞으로 악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이오커튼과 미생물 투입으로 축사주변 악취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익산이 마을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총량관리제’로 안정적 주택 공급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 통한 적정 공급 방안 수립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동주택의 수요·공급량 조절을 위해 노후 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오택림 익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생활권역 설정으로 권역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적정공급 방안 △노후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창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활용 방안 △익산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로 공급 조절 방향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종합적 검토 방안이 제시될 방침이다.

그동안 익산지역은 전체 아파트의 72%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과 낮은 주택 보급률이 인구 유출의 주원인으로 꼽혀 왔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주택과 공동주택의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시기 조절과 적정량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 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과 노후 주거 생활환경 지역의 정비방향을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리며 살고 싶은 익산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분주’

익산시가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연일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내년도 부처단체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문화재청과 산림청을 방문한데 이어 23일에는 환경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과의 면담에서 새마을 유역 수질 향상과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 △장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 △강산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 △의해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을 만나 철도 유류부지를 활용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 및 사고 예방 대책 학습을 위한 △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5월 말 중앙부처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오 권한대행을 필두로 각 국·소·단장과 직원들이 매주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펼치며 시의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전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민선 7기 ‘지방자치 공약대상’ 선정

익산시가 민선 7기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이행 평가에서 ‘지방자치 공약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2년 전통의 법률전문 시민단체로 상근 모니터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대학법정지법사단, 청년연합 등 5,124명의 구성원이 전국 226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에 대해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제시한 선거공보와 5대 선거공약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공약이행 점수를 평가했고 지역별 상위 25% 이내에서 ‘지방자치

공약대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는 공약 평가의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법률소비자연맹 평가에서도 공약대상에 선정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을 이행하기 위해 매 분기별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시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 발맞춘 ‘시민과의 적극 소통행정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다יר로움 익산시 만들기를 위해 모든 공약에 정성을 들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왔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19 중증증 병상 지정해제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2급 하향 조정으로 코로나19 중증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반병상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관내 감염병 치료병상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군산성신병원 3개소로 지난 10일 기준 194병상을 확충해 왔다. 하지만 경증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병상가동률,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해오다 23일부터 중증증병상을 지정 해제한다. 단, 군산성신병원은 29일까지 중증증병상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군산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 기능을 종료하고 외래·입원 진료를 비롯한 각종 의료서비스 기능을 군산시민에게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청소년 K-POP 축제 진행 단체 모집

군산시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꿈을 펼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는 ‘군산 청소년 k-pop축제’의 진행 단체를 모집한다.

군산 청소년 k-pop축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예술적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특색이 내포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고·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참여 경연대회와 유명 k-pop 예술인 섭외 공연을 주요 행사로 구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시민·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축제진행 단체의 응모 자격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수행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청소년 관련 축제나 행사 등 실적이 있는 단체나 법인을 우대하며 가점을 부여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